

집 없는 서민들 어찌 살라고... 광주 소형아파트 전세 값 ↑

최고 4.61% 경증... 집값 상승률의 3배 달해

올해 광주지역의 아파트값 상승폭이 전국 평균을 크게 밑도는 등 뚜렷한 보합세를 보인 것과는 달리 전체 아파트의 전세가는 '고공행진'을 거듭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99㎡(30평) 이하의 소형 아파트의 경우 전세가 상승률이 집값 상승률의 3배에 달할 만큼 가격 상승세가 두드러지면서 지역 내 무주택 서민들의 가계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지난달 30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 들어 9개월간 광주 아파트의 전세가는 2.64% 상승했다. 이는 같은 기간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1.06%)의 2.5배에 달하는 것으로, 수도권권을 비롯한 전국 평균 전세가격 상승률(2.59%)보다 높은 수준이다.

구별로는 동구의 전세가격이 4.

61%나 뛴 것을 비롯, ▲광산구(3.28%) ▲북구(3.03%) ▲남구(2.83%) ▲서구(1.52%) 등의 오름세를 보였다.

광주는 또 같은 기간 69~99㎡의 소형 아파트의 전세가격이 3.53%나 올라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전세난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광산구와 남구의 경우 소형 아파트의 전세가가 각각 5.38%, 4.05% 치솟는 등 일부 인기지역을 중심으로 저가의 전셋집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다.

이처럼 전세가격이 강세를 보인 것은 지역 수요자들이 매매보다 전·월세를 선호하는 데다 신규 아파트의 경우 기존 주택에 비해 집값이 월등히 높다는 점에서 주택 구매를 포기

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같은 상황은 전남지역도 비슷하다. 올해 전남 아파트의 전세가 상승률은 1.8%로 같은 기간 매매가 상승률(1.23%)을 크게 웃돌았다. 면적별로는 102~132㎡의 전세가가 2.76% 오른 가운데 69~99㎡와 168㎡ 이상이 각각 1.26%, 1.03% 상승했다.

이와 관련, 올해 전국 아파트값 상승률은 1.71%로, 지난해 같은 기간(12.8%)보다 상승폭이 크게 둔화했다. 특히 서울은 올해 집값 상승률이 1.08%에 그쳐 지난해 같은 기간(16.4%)에 비해 15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다.

지역별로는 인천시가 연초에 비해 8.88% 올라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으며, ▲경북(5.38%) ▲제주(3.82%) ▲울산(3.74%) ▲경기(2.58%) ▲부산(1.25%) 등의 순이었다. 반면 대구와 대전은 올 들어 집값

■매매		■전세	
지역	변동률	지역	변동률
서울	1.08	서울	2.63
경기	2.58	경기	2.89
부산	1.25	부산	2.34
대구	-2.07	대구	-2.58
인천	8.88	인천	3.83
광주	1.06	광주	2.64
대전	-1.82	대전	2.47
울산	3.74	울산	3.9
강원	-0.13	강원	0.37
경남	0.7	경남	4.43
경북	5.38	경북	6.43
전남	1.23	전남	1.8
전북	1.64	전북	3.72
충남	0.25	충남	2.59
충북	-0.27	충북	1.46
제주	3.82	제주	3.41
전국	1.71	전국	2.59

이 각각 2.07%, 1.82% 떨어졌다.

전세시장의 경우 올해 전국 상승률이 2.59%를 기록한 가운데 ▲경북(6.43%) ▲경남(4.43%) ▲울산(3.9%) ▲인천(3.83%) ▲제주(3.41%) 등의 상승폭이 두드러졌다.

부동산114 김규정 팀장은 "광주 주택시장은 전통적으로 전세가격이 강세를 보여온 데다 올 들어서도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등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최정호기자 choice@kwangju.co.kr

대한민국 명품주 '보해 복분자' 남북 정상회담 만찬주로 선정

보해 복분자주가 '남북정상회담'의 공식 만찬주로 선정됐다.

보해양조(대표이사 임건우)는 "보해 복분자주가 오는 2~4일 평양에서 열리는 '2007 남북정상회담'의 공식 만찬주로 선정돼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방위 원장이 함께하는 식탁에 오른다"고 1일 밝혔다.

최근 국제청에 의해 '대한민국 명품주'로 선정된바 있는 보해 복분자주는 '남북화해와 교류, 협력

증진'이라는 남북화해를 위한 자리에 잘 어울린다는 평가를 받아 백세주와 함께 공식 만찬주로 선정됐으며, 보해 복분자주는 노무현 대통령이 주최하는 담례만찬에서 남북인사들의 식사주로 사용될 예정이다.

2005년 11월에는 APEC 정상회의 공식 만찬주로 선정되면서 널리 이름을 알린 보해 복분자주는 지난 4월 한·중 정상회담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원자바오 총리의



만찬자리에 올랐다.
또 지난 2006년 ANOC 국무총리 주최 만찬주, 노벨평화상 수상자 광주정상회담의 만찬주, 6·15 민족통일 대추전 만찬주로 잇따라 선정돼 한국을 대표하는 정통와인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기아차 직원들이 지난달 28일 광주시 서구 치평동 중흥아파트 주차장에서 '찾아가는 비포 서비스(Before Service)' 활동을 펼치고 있다. 연중 실시되는 비포 서비스는 정비직원들이 고객을 찾아가 차량 예방점검을 펼치는 서비스로, 홈페이지(www.kia.co.kr) 또는 고객센터(080-200-2000)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기아차 광주공장 제공)

조달청 전자입찰 온라인 신원 확인

조달청(청장 김성진)은 전자입찰에 참여하는 일부 업체들의 공인인증서 불법대여에 의한 대리 투찰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1일 공고되는 입찰부터 개인용 공인인증서로 전자입찰에 참여하는 입찰자의 신원을 온라인으로 확인키로 했다. 조달청은 신원 확인 결과 사전에 등록된 자격있는 입찰자(대표자 또는 지정대리인)만 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자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의 대표나 등록된 입찰대리인은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개인용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또 입찰대리인을 통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입찰일 마감 전일까지 입찰대리인을 등록해야 하며, 입찰대리인은 당해 업체의 임·직원만이 가능하다.

/이종태기자 jilee@

서민 주택자금 지원 크게 줄었다

올 1조 7,000억 불과... 작년보다 2조원 이상 감소

올해 근로자와 서민들의 주택구입을 위해 쓰이는 서민주택구입자금 지원 규모가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30일 건설교통부가 통합신당 이낙연 의원에게 제출한 근로자·서민주택구입자금 지원 현황에 따르면 올해 계획된 자금은 1조7천억원에 불과해 작년의 지원실적인 3조7천98억원에 비해 2조원 이상 감소했다.

근로자·서민주택구입자금은 부부합산 연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에 연 5%대의 저금리로 주택구입자금을 대출해 주는 돈으로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도입됐다.

올해 자금지원이 감소한 데 대해 건교부는 "2006년의 경우 8·31대책에 따라 1년 기한으로 도입된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이 많이 이뤄졌던 데 따른 상대적인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은 2005년 11월부터 2006년 10월 까지 지원됐으며

2006년에만 2조5천122억원이 지원됐기 때문에 이를 뺀 경우 올해 순수한 근로자·서민주택구입자금은 작년보다 오히려 늘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2005년과 비교하면 건교부의 설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2005년에는 3조5천816억원의 근로자·서

민주택구입자금이 지원됐으며 이중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지원액 9천518억원을 뺀 금액은 2조6천298억원 이어서 올해 지원규모보다 9천298억원 원이나 많다.

생애최초주택구입 자금이 이뤄지지 않았던 2003년과 2004년의 자금 지원실적도 각각 2조566억원, 1조7천277억원으로 올해보다 많았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내달부터 대폭 인하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청장 박춘근)은 오는 11월부터 소상공인의 신용카드 수수료가 대폭 인하된다고 1일 밝혔다.

연간 매출 4천800만원 미만의 부가 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인 영세가맹점의 경우 카드사별 수수료가 2.0~2.2% 수준으로 일괄 인하되는 혜택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이·미용업의 경우 최대 46%의 수수료 인하혜택을 보게 되

며, 제과점·안경점·세탁소·자동차정비업 등은 최대 39%의 수수료 인하 혜택을 받게 된다. 특히 체크카드의 경우 대손비용·자금조달비용 부담이 제외됨을 감안, 1.5~2.3% 수준으로 대폭 인하된다.

이로 인해 전국 160만개 카드 가맹점 중 92%인 147만개 가맹점이 수혜대상이 되며, 영세가맹점과 중소기업가맹점에 혜택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밤·참다래·자두 재해보험 연장 판매

이달 19일까지

밤과 참다래, 자두 재배농가는 이달에도 자연재해 피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농림부는 지난달 30일 이들 품목의 재해보험을 19일까지 연장 판매한다고 밝혔다. 당초 가입 신청기간이었던 지난달 3~28일 농번기와 겹쳐 보험에 들지 못한 농가에 다시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다.

농림부는 올해 농작물재해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현재 사과·배·포도·단감·팥·감·감귤·복숭아 등 7개 인 농작물재해보험 대상에 밤·참다

래·자두 등 3개 품목을 추가한 바 있다.

특히 이번 3개 품목에 적용되는 재해보험은 강풍·가뭄·냉해·폭설 등을 포함해 거의 대부분의 자연재해(All-risks)를 종합적으로 보장하도록 설계됐다.

기존 재해보험의 경우 태풍·우박 등 특정재해로 범위가 한정돼 요인별로 피해가 발생할 때마다 보상 조사가 이뤄지는 반면, 이 재해보험은 실제 수확량이 여러가지 재해로 인해 시행령 개정을 통해 현재 사과·배·포도·단감·팥·감·감귤·복숭아 등 7개 인 농작물재해보험 대상에 밤·참다

전남농협 공채 54대1

42명 모집에 2,271명 몰려

농협전남지역본부(본부장 이덕수) 신규직원 채용에 2천여명의 지원자가 몰려 54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전남농협은 시군단위별로 42명의 직원을 채용키로 하고 지난달 18일까지 인터넷을 통해 지원서를 마감한 결과 2천271명이 응모했다. 순천관내 지역농협의 경우 1명 모집에 347명이 몰려 최고 경쟁률을 보이며 최근의 극심한 취업난을 반영했다.

1차 서류전형 합격자는 오는 14일 필기시험을 거쳐 다음달 초에 최종 합격여부가 결정된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베트남 국제결혼

800만원대 저·중·고·비·용 실속경제비용

빠른 성공을 원하십니까? 이오자이 국제결혼과 함께하는 현실은 더 아름답습니다.

이오자이 국제결혼

- 1. 베트남에서 100% 원가대로 베트남 여성을 소개합니다.
- 2. 베트남에서 100% 원가대로 베트남 여성을 소개합니다.
- 3. 베트남에서 100% 원가대로 베트남 여성을 소개합니다.
- 4. 베트남에서 100% 원가대로 베트남 여성을 소개합니다.
- 5. 베트남에서 100% 원가대로 베트남 여성을 소개합니다.

062)232-8966

010-5256-8966

종가집 설령탕

확장이전

그동안 엄하게 관리되던 종가집의 정통을 지켜달라 고차 당장부터 서비스를 더욱 전문화해 함께 고민을 이히해 보시겠습니다.

1. [서비스]

2. [서비스]

3. [서비스]

종가집 설령탕 예약전화 **062)374-0015**